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2년 3월 6일(주일) 제1383호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작은 실천들. 말씀 묵상, 대중교통 이용, 계단 이용, 텀블러 사용, 분리수거, 걷거나 자전거 타기, 플러그 뽑기.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3월 2일~4월 17일까지 ... 창조질서 묵상, 생활 속 작은 실천
두 번째 주제 ‘공기’, 대중교통, 걷고 자전거 타기, 지역 농산물 소비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창 1:6).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시작됐다. 3월 2일(재의 수요일)부터 4월 17일(부활주일)까지 창조질서를 묵상하고, 매일 작은 실천을 하며, 창조질서를 회복시키는 캠페인이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두 번째 주제는 ‘공기’다.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탐욕으로 대기 환경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 이번 주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일상에서 행할 작은 실천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지역 농산물을 소비하는 것이다. 자가용 이용 줄이기는 일상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이다. 수입 농산물 소비를 피하는 것도 좋은 실천이다. 수입 농산물을 운반하는데 많은 연료가 소비되기 때문이다.

3월 첫 주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창 1:3) 말씀을 묵상하고, 빛에 대한 창조질서를 회복시키는 작은 실천을 했다. 이 기간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사용하지 않는 공간의 등을 끄고,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 플러그를 뽑았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등도 적극적으로 실천했다<관련기사 6면>.

정임순 자매(브릿지공동체)는 “배달음식을 줄이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겠다”고 약속했고, 임채윤 학생(서빙고파워웨이브)은 “학교에서 나눠주는 불필요한 유인물을 줄이기 위해 나부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참여하는 ‘인증사진’과 ‘한 줄 소감’을 카카오톡 채널 ‘창조질서회복’ 또는 문자메시지(010-6442-0191)로 보내면 온누리신문에 게재되고, 소정의 상품을 제공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4월 17일까지 ‘생명나눔의 기적’

생명나눔의 날 2차 행사 5~6일 서빙고, 20일 양재

대한민국 ‘피(血)’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이하 생명나눔의 기적)이 시작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다. 생명나눔의 기적은 혈액 수급 부족 문제 해결을 돕고자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혈하는 캠페인이다. 생명나눔의 기적 캠페인에 동참을 원하는 성도들은 가까운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 또는 헌혈의 집을 찾으면 된다. 헌혈카페에서 헌혈하고 헌혈기념품 대신 기부권을 구매하면 소아암 어린이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생명나눔의 기적은 4월 17일 부활절까지 이어진다.

생명나눔의 기적 ‘참여 인증 사진, 한 줄 소감, 이름, 연락처, 주소’를 카카오톡 채널 ‘온누리교회 생명나눔의 기적’이나 문자메시지(010-4048-3091)로 보내면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 온누리신문에 게재된다. 이재훈 담임목사의 저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물리라2: 하나님의 성품〉도 선물로 보내준다. 두란노서점 서빙고점에서는 생명나눔의 기적에 참여한 성도들을 위한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헌혈 인증사진이나 헌혈증을 보여주면 10%를 할인해준다(일부 품목 제외).

생명나눔의 날 2차 행사도 진행된다. 3월 5-6일 서빙고온누리교회, 3월 20일 양재온누리교회 주차장에 헌혈버스가 온다. 생명나눔의 날 행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에 ‘이름, 공동체, 연락처, 주소, 헌혈 참여 캠퍼스’를 기록해야 한다.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교회 로비에 마련된 헌혈대기 장소에서 신청하면 된다<관련기사 7면>. 문의: 02-570-7523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4월 10일까지 홍대입구역 3번 출구

‘40 days for life’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을 시작했다. 3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홍대입구역 3번 출구 경의선숲길 인근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은 국제적인 낙태 반대 기도운동이다. 기도 봉사자들이 ‘우린 모두 태아였습니다’, ‘생명은 가장 첫 번째 인권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당신의 아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등 생명의 소중함과 낙태 반대를 호소하는

피켓을 들고 침묵기도 하면서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캠페인이다.

온누리교회는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3월 13일까지 기도 봉사를 온누리교회가 담당한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기도 봉사자로 섬기고 싶은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타 교회 성도는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사이트(www.40daysforlife.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3215-3456, 3239

NGO 더멋진세상,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

인접국 불가리아, 몰도바에서 숙소, 식량, 생필품 제공

NGO 더멋진세상이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인다. 불가리아, 몰도바 등 우크라이나 인접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협력 선교사들과 함께 피난민들을 돕기 위해 준비 중이다.

체르노빌에서 사역하던 김태한 선교사는 불가리아로 피난 온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대상으로 숙소, 식량 등 생필품 지원 및 의료지원 사역을 할 예정이다. 몰도바에서도 NGO 더멋진세상이 활동한다. 한호진 선교사가 우크라이나 난민 70명을 돕고 있다.

3월 12일(토)과 13일(주일) 봉헌하는 3월 비전헌금도 우크라이나 난민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문의: 02-2271-2246, 후원계좌: 하나은행 573-910011-52905

자녀 양육, 도와주세요!

부모의 사명은 ‘자녀의 독립’



한은경 권사
(두란노어머니학교 이사장)

인간의 삶은 누군가를 만나면서 시작된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과 질이 결정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만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떠남이다. 어쩌면 떠남으로부터 만남이 시작되는지도 모른다. 떠나지 않고서는 만남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떠나라”고 말하고 있다.

만남은 떠남을 위해 예비 되어 있고, 떠남을 통해 새로운 만남이 시작된다.

인생은 떠남이다. 수정(受精)도 떠남에서 시작된다. 아버지를 떠난 새 생명의 씨앗인 정자가 힘든 여행 끝에 어머니 몸 속에 있는 난자를 만나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된다. 생명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자란다. 그 생명은 결국 떠나야 산다. 10개월이 지난 생명은 떠남을 시작한다.

떠남에는 아픔이 있다. 어머니가 해산의 고통을 맛보고, 어린 생명도 아픔을 맛보며 새로운 만남을 준비한다. 고통 끝에 세상에 나온 생명은 땃줄을 잘라야 한다. 육체적으로 떠나는 것이다. 땃줄을 잘라야 아기도 살고 어머니도 산다.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던 땃줄을 끊고 새로운 만남을 시작하는 것이다. 생명은 어머니의 실체를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면서 새로운 독립된 생명체로서 삶을 시작한다. 떠남을 위해 풍성한 만남이 필요하다. 그래서 갓 태어난 아기들은 엄마와의 애착이 필요하다. 아기들은 엄마와의 깊은 만남을 통해 관계 맺는 훈련을 할 수 있다. 깊은 애착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집착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집착을 ‘애착의 실패’라고도 한다.

아버지는 아이들의 양육자다. 어머니의 사랑이 따뜻한 애정 표현과 개인적 안전을 중요시하는 ‘품는 사랑’이라면, 아버지의 사랑은 도전, 극복, 모험을 향해 ‘떠나게 하는 사랑’이다.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떠나는 훈련을 시켜야 한다. 아버지의 궁극적인 사명은 아이를 잘 양육해서 가정을 대표해 사회로 내보내는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사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열방을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보람 있는 일을 하도록 아이를 내보내는 것이다. 가문에 흘러내리는 좋은 영향력은 계속 이어가고, 잘못된 영향력은 끊어서 새로운 가문의 역사를 써나가도록 아이를 독립시키는 것이다.

아버지는 아이의 독립을 준비시켜야 한다. 아이가 어릴 때는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 함께 놀이하고, 운동장에 가서 열띤 응원도 하고, 학교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아이들이 쉽게 독립한다. 아이가 크면 아버지의 친구들과도 어울

리는 기회를 주고,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아이들에게 홀로 결정하는 기회를 줘야 한다. 사사건건 간섭하고 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결정을 책임지도록 훈련해야 한다. 아버지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선택과 결정은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아이가 어려서는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커서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홀로서기를 하도록 도와야 한다. 아버지는 아이가 잘 독립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사람이다. 독립된 인격체로서 독립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이다.

“아이가 어려서는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커서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홀로서기를 하도록 도와야 한다.
독립된 인격체로서 독립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차세대 패션 집회

‘We are PowerWave’ 참가 간증

“하나님은 제 인생 1순위”

올해 중학교 1학년이 되어서 파워웨이브 패션 집회에는 처음 참여했어요. 초등부에서 진행했던 여름캠프를 생각하면서 기대가 컸어요. 초등부 여름캠프는 노는 시간이 많고 여러 가지 활동이 많아서 정말 재미있었거든요. 그런데 파워웨이브 패션 집회는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말씀 듣고 찬양하는 시간이 많아서 처음에는 어색한 마음이 들었어요.

패션 집회에 참여하는 3일 동안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언니 오빠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어색했던 마음이 모두 사라졌어요. 혼자 읽으면 어려웠던 성경 말씀들을 목사님들이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진정한 크리스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었어요.

이번 파워웨이브 패션 집회에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고 싶어요. 제가 가진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제 인생 1순위로 올려드릴 거예요.



유지안 학생
(도곡 파워웨이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파워웨이브 패션 집회가 3년 만에 열려서 정말 기뻐요. 2019년에 패션 집회에 참여했을 때 함께 예배하고 찬양했던 열기가 그리웠거든요. 패션 집회는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늘 기대가 돼요. 이번에도 기대를 품고 집회에 참여했어요. 이번에 받았던 가장 큰 은혜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박위 형제님 간증과 이재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서 지낸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일들이 생각나면서 연약한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학교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크리스천이 되고 싶어요. 학교와 친구들,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생기기를 바라고 있어요. 기도로 학교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배운서 학생
(서빙고 파워웨이브)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3월 2일 본문(누가복음 18장 10~14절)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 두 사람이 기도하려 성전에 올라갔어요. 아래 기도문을 보고 누가 드린 기도인지 적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기도는 어떤 사람의 기도인지도 맞춰보세요.

(1)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금식도 두 번이나 하고 십일조도 빠짐없이 드리는 사람입니다. 남의 것을 뺏는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 간음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을 감사합니다.”

(2)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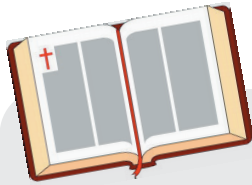
(3) 하나님은 이 두 사람 중 누구를 흠 없애 여기시고,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나요?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6.1 vs 99





주일강단



박종길 목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차별하거나 편애하지 않습니다. 편견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이여,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회당에 금반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누더기 옷을 걸친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오’라고 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거기 섰든지 내 발판 아래 앉으시오’라고 말한다면 이는 여러분이 스스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1~4절).

야고보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부자는 환대하고, 가난한 사람은 홀대한다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고 차별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세대나 부요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지위가 낮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차별이 많았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로마 사람과 야닌 사람, 유대인과 이방인,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묵회했던 예루살렘교회도 부요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었고, 흠어진 유대인 중에도 차별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외모로 차별하고, 편견과 선입견으로 차별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 자신이 가진 취향이나 기준으로 사람을 편애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차별받게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창조하셨고, 모든 사람은 그 존재만으로도 사랑받을 이유가 있고, 존중받을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위, 소유와 업적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모든 것이 불가능한데 그것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거절하지 않으셨고,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 오는 것

을 막지 않으셨고, 귀신들린 막달라 마리아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사회 약자에 속해 있던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적개심으로 공격했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조차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도 제한하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을 제한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위나 업적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가질 수 없고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겉모습으로 차별하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주시고 존중해 주신 것처럼, 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부요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직분이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품고 존중하십시오.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둘째,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택해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멸시했습니까? 부자들은 여러분을 학대하며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러분이 받은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지 않습니까?”(5~7절).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커지고, 깊어지고, 성숙하는 믿음의 부자가 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을 택해서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 부요하게 만들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실패하고,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믿음이 더 커지고 부요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께 절박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연약해졌을 때 불신앙이 믿음으로 나가는 것을 봅니다.

“내가 자랑해야 한다면 나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습니다”(고후 11:30).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

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고후 12:9~10).

사도 바울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유는 궁핍과 모욕과 핍박과 궁핍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한 것도 자랑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들어서 믿음을 부요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택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것을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부요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의 믿음이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어려움과 고통과 풍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난한 사람이 믿음이 더 좋고, 부요한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 사람은 믿음이 많고 건강한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하든 부요하든, 약하든 건강하든, 풍랑 가운데 있든 순풍에 돛단 듯 행통한 시간을 보내든 믿음이 부요해지기를,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믿음이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십시오”입니다.

“여러분이 성경대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상의 법을 지킨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며 율법이 여러분을 범죄자로 판정할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어느 하나를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비록 간음하지 않았더라도 살인했다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8~13절).

야고보는 율법의 진정한 정신, 참율법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참된 정신입니다. 율법의 최상위 법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십계명이고, 최상의 법 내용입니다. 최고의 법은 사랑입니다. 진정한 자유의 율법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보인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사랑의 빛 외에는 누구에게도 빛을 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율법에 따라 우리는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자유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자유를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죄하심으로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구원을 완성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한마디 말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갈 5:14).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율법을 완성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최상의 법이고, 자유하는 율법입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기는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로 이해합니다. 첫째, 차별하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둘째,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셋째,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구원을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말고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십시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조차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율법이 완성을 이루고, 자유하는 율법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부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푸십시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1.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2. 온누리교회의 지원과 노력

위로하고! 도움 주고! 기도하고!

이웃의 고통에 대처하는 크리스천의 자세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 지난 2월 24일(현지시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다.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서는 시가전이 이어지고 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 위협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일촉즉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국내에 있는 러시아어권 성도들도 연일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 온누리M센터 러시아어예배 유세르게이 목사가 이번 사태에 대한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유세르게이 목사
(온누리M센터 러시아어예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한때 구소련 곳곳에서 살았던 우리 고려인 동포들을 포함한 러시아어권 성도들은 이 상황을 몹시 염려하고 있다. 하루속히 전쟁

이 끝나도록 기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케케묵은 갈등의 원인

러시아는 나라가 워낙 크다 보니까 언제나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러시아는 몽골, 터키, 유럽과 많은 전쟁을 했다. 현재 러시아의 가장 큰 문제는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팽창정책에 대항해 만든 서유럽 지역 집단 안전보장 기구)다. 우크라이나는 그 사이에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언어와 혈통과 문화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나라다. 그런데 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 국가가 됐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같은 슬라브족이고, 같은 언어와 문화권이면서 독립 국가가 된 것은 지정학적 이유가 크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접경지역에 있고, 제정(帝政) 러시아 시절에는 폴란드에 속해 있던 땅이었다. 한마디로 현재의 우크라이나는 제국들의 확장에 따라 이 나라에도 속하고 저 나라에도 속했다. 그러니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는 소련 해체 이전에는 한 번도 독립 국가였던 적이 없었다”는 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오랜 유럽과의 문화접촉으로 인해 유럽의식을 자생시키면서 러시아로부터 독립하기를 요망해 왔다. 그러나 소련의 등장으로 꿈쩍없이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됐다. 대농토가 기반인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스탈린의 집단농장화로 농토를 빼앗기고 수확한 곡물까지 빼앗겼다. 1930년대 소련에 대기근이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국립과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당시 대기근으로 약 9백만 명이 죽었는데 그중에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약 4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다.



그 아픈 경험들이 있기에 소련 해체 이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더욱 독립을 주장했고 마침내 1991년 우크라이나라는 독립 국가가 탄생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러시아와 같은 민족, 같은 언어를 쓰지만, 도리어 경제적으로 잘살고 문화적으로 세련된 유럽과 어울리고 싶어 한다. 엄연히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독립된 주권국가이므로 러시아의 영향과 눈치를 받지 않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입장은 어떨까? 러시아에게 우크라이나 문제는 국가 안보가 걸린 일이다. 우선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러시아는 유럽과 전선을 맞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국경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일 때문에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가 중립이라도 확실히 지켜주면 좋으려만, 자꾸만 NATO에 들어가려고 하니 어떻게든 막아야만 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 같은 친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도 러시아 쪽으로 끌어들여 우크라이나가 유럽으로 가려는 것을 방해하려고 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계속 NATO 가입 추진을 하면서 현재와 같은 전쟁상태로 발전한 것이다.

사정이야 어떻게 됐든 우크라이나는 소련 해체 이후 독립 국가가 되었다. 독립 국가란 주권 국가라는 소리다. 자신들이 어디에 속하든 외부의 간섭없이 그 나라 국민이 결정할 문제이다. 그러므로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옳지 않은 침략행위이다.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 성공하기 힘들 것이다. 러시아가 큰 나라답게 우크라이나와의 문제를 조금 더 인내를 갖고 해결하려고 했다면, 우크라이나와 원만한 관계를 만들어 완충지대나 중간지대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 푸틴 대통령이 어떤 목적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러시아의 미래를 위해서도 이번 침략은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한때 소련 국민으로 살았고, 지금은 우크라이나처럼 각각의 독립 국가에 사는 고려인들과 한국에 사는 러시아어권 사람들, 러시아어권 교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벌써 서로의 편으로 갈려 갈등과 분열을 하고 있다. 이는 크리스천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자기 들은 정보대로 판단한다. 문제는 그 정보가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다. 자기주장만 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교회의 분열이 커지고, 한국에 있는 러시아어권 교회들의 단합이 불가능하게 될까 봐 우려스럽다. 러시아 밖의 교회들은 푸틴 대통령을 문제의 주범으로 보는데, 러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전쟁을 반대하면서도 러시아 사람이라는 이유로 비난과 압박을 받고 있다. 교회까지 미움, 비난, 차별로 가득해지고 있다. 굉장히 불행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종교와 국가 이념이 맞부딪치면 무엇이 이길까? 대개 국가 이념이 더 강고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그 지도자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것들이 모두 폐해지더라도 마

지막까지 남아있다. 그러므로 기준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를 헤아려야 한다.

온누리M센터 러시아어예배 공동체는 중앙아시아 국적 신도가 약 75%이고, 러시아 국적 신도가 20%, 우크라이나와 나머지 국적 신도는 약 5% 정도 비율로 구성되어 있다. 약 80%가 동포들이다. 이번 두 나라 전쟁이 공동체에 끼치는 직접적인 나쁜 영향은 없는 것 같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소련 해체 이후 어렵게 세워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회 공동체들의 분열과 갈등이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더욱 기도에 힘쓰며, 자기성찰을 하고, 성도들과 평화의 소중함을 다져야 할 것이다.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나서서 발언하기보다 성도들 사이에 분열이 없도록 살피고 기도에 힘써야 할 것이다.

나는 고려인이다. 내가 살던 마을은 수많은 민족들이 사는 동네였다. 고향에서 자동차로 1~2시간이면 우크라이나 국경이 나온다. 어릴 땐 그 국경이 없었다. 한 동네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고려인,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체첸, 다게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독일, 유대인 등 다양한 민족이 이웃 사람이었다. 내 배꼽친구 4명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몰도비아 계통, 유대인이다. 현재 이 친구들은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독일, 러시아에 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들에게 전하려는 비전을 품고 한국에 와 있던 나로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마음이 찢어지게 아플 뿐이고, 눈물밖에 나지 않는다.

현재 상황을 놓고 일부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에게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죽이고 있는냐?”고 묻고, 우크라이나 사람에게 “왜 우크라이나가 8년 동안 돈바스 지역 러시아 사람들을 죽였느냐?”고 물어본다. 제발 이런 질문은 하지 말아주기를 바란다. 그 대신 위로해주기를 바란다.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도와주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기도가 필요하다.

전쟁이 빨리 그치고 회담을 통해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교회들이 다시 하나가 되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수많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하루속히 고향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이유가 되었던 무고한 생명이 다치는 일과 평화가 깨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로 인해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비방하고 분열해서도 안 된다.

“나는 온누리교회 순장입니다!”

온라인 순장영성수련회 ... 신임 리더십 768명



2022 순장영성수련회가 지난 3월 1일 온라인(Zoom)으로 열렸다.

신임 리더십들의 다짐과 포부

“들어주고 기도하는 순장”

“순장 제안을 받고 너무 당황스러웠고, 집 사람 원망(?)을 잠시 했었습니다. 집사람이 제가 순장이 되는 게 소원이라면서 기도를 엄청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자신의 기도가 이뤄졌다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뻐하면 아내는 단체채팅방에 ‘낙심을 이기고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기도가 합당하다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남편이 순장된 것은 사람의 일인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심은 주님의 역사입니다. 이 일은 끈질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간증합니다’라고 울릴 정도였습니다.”

저는 믿음이 아직 약한 사람입니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순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많이 들어주는 순장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순이 젊은 부부가 많은 순인데, 여성순에 가까울 정도로 남성들이 참여를 잘 안 합니다. 그들이 순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능력이 안 되는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어서 아직도 어안이 빙빙합니다. 기도 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순장으로 섬기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영주 순장
(평택온누리교회)

“기쁨과 아픔 공유하는 순장”

“처음에 순장 직분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망설여졌습니다. 편하게 교회 생활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또 순장 교육을 받으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사 용하시려고 귀한 직분을 주시는지 그저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순장 교육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는 순장입니다!”를 외쳤 습니다. 그 외침이 비장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순장님들을 떠올려 봅니다. 저는 온누리교회에 와서 정말 훌륭한 순 장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큼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순원 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순원들과 기쁨과 아픔을 공유하는 순장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중보기도가 살아나는 순이 되도록, 순원들이 세상으로 그 기쁨과 은혜를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노정숙 순장
(강남C공동체)

“나는 온누리교회 순장입니다!”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순장입니다!”

힘찬 외침이 온라인을 타고 울려 퍼졌다. 온누리교회 순장들의 축제 한마당 ‘2022 순장영성수련회’가 지난 3월 1일(화) 온라인(Zoom)으로 막 올랐다. 온누리교회 순장 이상 리더십(장로, 총무, 다락방장, 순장) 2,042명이 참석했다. 이날 신임 다락방 185명, 신임 순장 583명이 임명됐다. 이날 열린 순장영성수련회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3년 만에 열려 더욱 뜻깊었다.

2022 순장영성수련회는 신현승 장로 기도, 신준환, 최경영 성가사 특수, 홍성호 장로(당회서기) 특강, 시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소개, 문상철 원장(카리스교차문화학 연구원장) 메시지, 기도회, 신임순장 임명, 선서 ‘나는 온누리 순장입니다’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홍성호 장로는 ‘순장리더십, 하나님의 상속자 훈련’을 주제로 특강했다. 홍 장로는 “리더의 조건은 어디로(방향성), 누구와 함께 가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면서 신임 리더십들에게 “어떤 상황이든,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리더로 성장하

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문상철 원장은 ‘Z세대 세계관 이해와 선교적 접근’을 주제로 강의했다. 문 원장은 “Z세대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흐르도록 성인 공동체(리더십)와 한국 교회가 그들을 이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광제 장로(양천공동체)는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을 시작하면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생명존중을 위해 더욱 힘써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김효진 총무(전양공동체)는 “새롭게 세워진 순장님, 다락방장님들이 무엇보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권혁은 집사(강남D공동체)는 “순장이 순을 이끈다고 생각하지 말고, 순 식구들이 순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섬기는 순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독려했다. 박중순 신임 다락방장(관악금천공동체)은 “순장영성수련회에서 배운 것을 잘 실천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다락방장, 순원 한 명 한 명을 기억하며 늘 기도하고 고민하는 다락방장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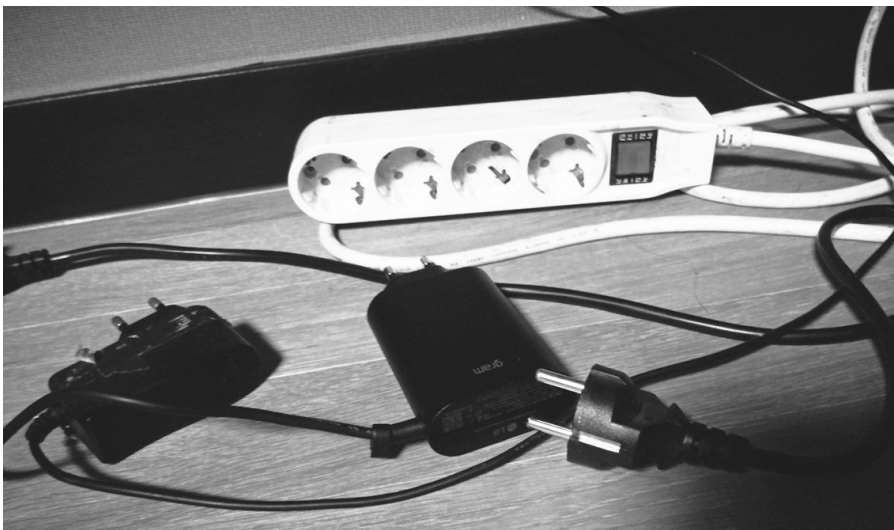
매일의 작은 실천을 통한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창조질서 회복시키는 주인공!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시작한 작은 실천들

온누리교회가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시작했다. 3월 2일(재의 수요일)부터 4월 17일(부활주일)까지 창조질서를 묵상하고, 매일 작은 실천을 하며, 창조질서를 회복시키는 캠페인이다. 3월 첫 주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창 1:3) 말씀을 묵상하며 빛에 대한 창조질서를 회복시키는 작은 실천을 이어나갔다. 본지에서는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동참하고 있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다짐과 실천기를 소개한다.



가전제품의 콘센트를 빼서 대기전력을 아끼는 것도 창조질서를 회복시키는 좋은 실천이다.

이정진 성도(온라인커뮤니티)는 지난 주일 예배에서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소개하는 영상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불필요한 등을 끄는 습관이 창조질서를 회복시키는 실천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았기 때문이다.

“평소에 불필요한 등을 끄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만 생각했지, 말씀과 연결지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창조질서를 무너트리고 있고, 소등이라는 작은 실천만으로 창조질서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느낀 점이 많습니다. 저도 사순절 기간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창조질서를 바로 알고 회복시키는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임채윤 학생(서빙고과워웨이브)도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시작하며 실천 목표를 세웠다. 학교에서 나눠주는 유인물 줄이기다.

“학교에서 유인물을 많이 나눠주는데 대부분 보지도 않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시작하면서 나부터 신경 쓰고 바뀔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임채윤 학생의 말처럼 A4용지 1장을 너무 쉽게 사용하는데, A4용지 한 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원이 소모된다. 물 10리터가 필요하고, 약 2.88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각종 청구서나 영수증을 전자 청구서로 바꾸기

만 해도 많은 자원을 아낄 수 있다.

계단 이용하고, 배달음식 줄이기

정임순 자매(S브릿지공동체)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더 크게 깨달았다.

“코로나19 시국에 배달음식은 꽤 편리한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배달음식을 시켜 먹을 때마다 일회용품이 쌓이는 것을 보고 경각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배달음식을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인간이 멈추자 동식물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인간은 자연 없이는 살 수 없는데 동물과 환경을 너무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임순 자매는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시작하면서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습관을 하나 더 추가하기로 마음 먹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다. 엘리베이터를 한 번 이용할 때 드는 전력이 평균 30Wh다. 이산화탄소는 약 127g이 발생한다. 하루에 한 번만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도 연간 4.6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환경 9단이 실천하는 좋은 습관

김경희 집사(경기A공동체)는 오래전부터 친환경 생활협동조합을 이용한 환경 9단이다. 텀블러 이용하기, LED 등으로 교체하기, 난방 줄

이기, 수입산 식품 줄이기,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설치하기, 물티슈 안 쓰기, 영수증 안 받기 등 다양한 실천을 이미 하고 있다. 교회나 일상에서도 환경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 온누리교회에서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시작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보다 반가울 수 없었다고 한다.

김경희 집사처럼 꾸준히 텀블러를 이용하면 특히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면 연간 3.5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백열등 하나를 LED 등으로 교체하면 연간 30kg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다. 매월 고지되는 각종 지로나 영수증을 이메일 혹은 스마트폰 전자영수증으로 바꾸면 1년에 종이 36장을 아낄 수 있다. 연간 0.3kg의 이산화탄소도 줄일 수 있다. 김경희 집사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분명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인간의 탐심이 바다에 떠다니는 거대한 쓰레기 대륙을 만들었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

에 좋았더라’를 시작으로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합니다”

건물관리를 하는 윤명석 성도(노원공동체)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면서 창조질서를 회복시키고 있다.

“건물관리를 하다 보면 쓰레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버립니다. 저처럼 건물관리를 하는 분들도 분리수거를 하면 일이 늘어나니까 그냥 모아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분리수거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물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꼭 분리수거 합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참여하면서 분리수거를 더욱 철저하게 해서 재활용이 더 잘 되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줄 소감

소등, 플러그뽑기, 계단이용 실천했습니다. 소중한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캠페인에 동참하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 김주영 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아끼고 잘 관리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며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날마다 실천하며 나아갑니다

/ 이진선 성도

이면지 6장 사용했습니다.

/ 조진우 성도

모든 방 전원과 난방 전원을 off 했습니다.

/ 남정우 성도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되어 감

사합니다. 당장 오늘 저녁부터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 공간의 불을 끕니다.

/ 무명 성도

생명은 그 자체로 귀합니다. 오래전부터 병원을 매일 오는 지적장애인 한 분이 계십니다. 가족도 없고 복지혜택도 받기 어려우신 분인데 입원을 시켜드렸습니다. 혈당이 높아서 주사를 놔드리고 샤워실과 음식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저도 어디까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제가 도울 수 있는 생명을 돌보겠습니다.

/ 무명 성도

2015년부터 퇴근길에 따릉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인증하게 되어 기쁩니다!

/ 김혜진 성도

이산화탄소(CO₂)란?

이산화탄소는 기후변화 주범으로 알려진 온실가스다. 30년생 소나무 한그루가 1년에 흡수하는 이산화탄소가 약 30kg이다. 온실가스는 지상에 열을 가둬 지구 온난화를 가속한다.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많이 배출된다. 일상에 필요한 사소한 것 하나라도 만들고 사용하는 데 화석연료가 쓰인다.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는 객관적인 지표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측정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규제하며 기업 간 이산화탄소배출권을 거래하기도 하는데 지난 1월 기준 유럽연합의 ‘이산화탄소 1톤 배출권’이 약 80유로(한화 10만 원 상당)에 거래됐다. 이산화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매년 상승하고 있고, 많은 기업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산화탄소에 무디기 마련인데 모든 비용(환경파괴, 가격상승)은 소비자들이 부담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친환경 제품을 소비하는 것은 창조질서를 회복하는 좋은 선택이다.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온 가족이 함께 헌혈!

이주용, 김영혜 성도네 ‘가족 헌혈의 날’

342,772명.
2022년 국내 헌혈자 수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과 2월 두 달 동안 30만 명이 넘는 국민이 헌혈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두 달 가까이 적정혈액보유량인 5일분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혈액 수급 부족 문제 극복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4월 17일까지 대한민국 ‘피(血)’ 로회복 프로젝트 ‘생명나눔의 기적’ (이하 생명나눔의 기적)이 이어진다. 생명나눔의 기적은 혈액 수급 부족 문제를 돕기 위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하는 캠페인이다. 온누리교회를 포함해서 16개의 교회 및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성도 2,137명이 헌혈로 생명을 나눴다(3월 6일 기준).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온 가족이 함께 헌혈한 이주용, 김영혜 성도네(분당B공동체).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날마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업로드되고 있다. 3월 4일까지 온누리교회 성도 285명의 고백과 간증이 올라왔다. 100번 넘게 헌혈한 성도, 생애 처음 헌혈한 성도, 생애 마지막 헌혈을 앞둔 성도, 가족 또는 공동체와 함께 헌혈한 성도 등 귀한 사연들이 가득하다. 그중에서도 특별한 사연이 눈에 들어왔다. 온 가족이 함께 헌혈에 동참한 이주용, 김영혜 성도네(분당B공동체) 이야기다. 자녀 이호리, 이호빈 학생(양재 파워웨이브)과 함께 온 가족이 헌혈 나들이를 다녀왔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는 말이 딱 맞다. 이호리 학생도 부모님이 꾸준히 헌혈하는 것을 보고 첫 헌혈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

다.
“부모님이 주기적으로 헌혈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기회가 되면 헌혈해하겠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주일예배를 마치고 아빠가 온 가족 함께 헌혈하러 가자고 권유하셔서 ‘드디어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습니다(웃음). 처음 하는 헌혈이라 조금 긴장하긴 했는데 부모님, 동생과 함께하니깐 긴장이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온 가족이 헌혈하는 경우는 헌혈의 집에서 드문 일이었다. 헌혈의 집에 있는 모든 의료진이 축하를 건넸다. 김영혜 성도는 자녀들에게 귀한 경험을 선물할 수 있어서 기뻐했다.
“온 가족이 헌혈한다고 했더니 헌혈의 집 간호사님이 놀라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거의

없다면서 기뻐해 주시고 담당자까지 나와서 인사를 건네셨어요. 아이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준 것 같아서 감사했습니다. 온 가족이 헌혈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가족만의 잊지 못할 추억이 생긴 것 같아서 정말 기쁩니다.”
헌혈하러 가기 전까지만 해도 반응이 뜨뜻미지근했던 이호빈 학생은 헌혈을 마치고 나서 생각이 180도 달라졌다. 주기적으로 헌혈하기로 다짐했다.
“사실 헌혈에 대해서 별생각이 없었습니다. 귀찮은 마음도 살짝 있었어요. 그런데 헌혈을 하고 기념품으로 문화상품권을 받고 나서 마음이 싹 달라졌습니다. 헌혈만큼 좋은 일이 또 없더라고요(웃음). 건강도 체크하고, 이웃도 돕고, 문화상품권도 생기고 헌혈

이야말로 일석삼조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헌혈할 거예요.”
이주용 성도는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 헌혈의 날’을 만들고 실천하기로 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도 가족 헌혈을 추천했다.
“가족이 함께 헌혈하는 일은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뭉쳐주는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함께 이웃을 돕는 의미 있는 일을 실천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더 가까워졌습니다. 자녀들에게 이웃사랑을 가르쳐주는 귀한 기회가 되기도 했어요. 이번 경험이 정말 좋아서 ‘가족 헌혈의 날’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주기적으로 온 가족이 함께 헌혈할 수 있는 날을 정해서 실천하려고 합니다. 다른 성도님들도 가족과 함께 헌혈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명 큰 기쁨과 행복을 얻으실 것입니다.”

생명나눔의 기적 한 줄 소감

-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가장 쉬운 일 실천하였습니다. 건강과 기회 허락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박하늘나라 성도
- 헌혈할 수 있는 건강함 주심 감사합니다. 조그마한 일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기 되길 기도합니다. / 신관용 성도
- 별거 아니지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홍샘 성도
- 헌혈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 이경남 성도
- 딸과 함께 헌혈할 수 있는 건강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서광열 성도
- 첫 경험 50세 훌쩍 넘어 헌혈하고 나서 가족들에게 흥분된 감정을 얼마나 주절주절했는지 나중에 부끄럽기도 했어요. 이게 얼마나

- 기쁜 일인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감사해요, 모든 게. / 이은주 성도
- 헌혈할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하셔서 생명나눔에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김동석 성도
-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생명을 주신 대로 나눕니다. / 이준영 성도
- 예수님의 보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뜻깊은 시간이었고 건강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 안현주 성도
- 지난해 1월 피로회복 프로젝트로 처음 헌혈한 이후로 꾸준히 헌혈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6번째 합니다. 나눌 수 있게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김태수 성도

- 16번째 헌혈했습니다. 건강 주신 하나님께 감사, 생명 나눔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 양기영 성도
- 한 해를 온전히 허락하시고 건강을 통해 헌혈에 참여케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 권용봉 성도
- 첫 헌혈로 동참하게 되어 기쁩니다!!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김소희 성도
- 범사에 감사합니다! / 허경 성도
- 이웃을 돕는 데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 강정모 성도
- 선하고 생명을 살리는 옳은 일(헌혈)에 동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용호 성도
- 헌혈은 생명을 살립니다. 복음은 영혼을 살립니다.

- / 서예담 성도
- 소금과 빛 되어 40일 특별새벽기도회 완주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생명나눔의 기적에 동참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보혈로 헤모글로빈 수치 높여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 이효진 성도
- 생명 나눔에 동참하여 헌혈할 수 있는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피를 나누는 것의 의미를 묵상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 최정은 성도
- 함께해서 기쁘네요. / 김상원 성도
- 첫 헌혈이라 두렵기도 했는데 두려움보다 나눔의 기쁨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눔을 통해 기쁨도 더해지길 바랍니다. / 정혜진 성도
- 마지막 헌혈을 했습니다. 이제는 나이 제한으로 더이상 헌혈하고 싶어도 못하네요. 헌혈 기회가 있을 때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 조병재 성도

기독교 OTT '풍당' 론칭 1주년

우리에게 기독교 OTT '풍당'은 둘도 없는 동역자, 비전 나누는 친구, 탁월한 도구

기독교 OTT '풍당' (이하 풍당)이 벌써 첫돌을 맞이했다. 풍당 덕분에 한국 교회가 건강한 복음 콘텐츠를 더욱 쉽게 접하고 있다. 론칭 1년 만에 가입자 8만 명, 협력교회 240개를 돌파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풍당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서울우리교회, 도화교회와 올해부터 교회 양육을 풍당으로 할 계획인 열린비전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을 만났다. 목회현장에서 풍당은 '둘도 없는 동역자', '비전 나누는 친구', '탁월한 도구' 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기독교 OTT '풍당'은 목회현장(좌, 서울우리교회)과 꿈을 키우는 다음세대(우, 도화교회)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

서울우리교회 허인행 목사에게 풍당은 둘도 없는 동역자다. 척하면 척하는 담임목사의 목회를 도와주는 부교역자 같다. 서울우리교회는 성도 수가 30여 명인 작은 개척교회다. 성도 중에 한 가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성도가 모두 초신자인 게 특징이다.

“개척 9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 서울우리교회는 학교 앞에서 아이들을 전도하면서 세워졌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전까지는 참 재미있는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서울우리교회와 허인행 목사가 큰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예배당 예배가 제한되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다. 바로 그때 CGNTV가 허인행 목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갑자기 대면예배가 중단되고 영상 예배를 시작하려고 했더니 어려움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 CGNTV에서 ‘작은교회 온라인 예배 지원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을 알고 지원했습니다. CGNTV 직원들이 찾아와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장비부터 기술, 노하우까지 전수해주셨습니다. CGNTV 덕분에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우리교회는 풍당합니다”

목회자에게 초신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만

큼 보람차고 기쁜 일이 없다. 허인행 목사도 그렇다. 그런데 아쉬운 게 있었다.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정말 많은데 초신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진도를 나가다 보니까 때로는 욕심이 나고 아쉬울 때가 많았다. 그 아쉬움을 풍당이 해소해주고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지식이 정말 풍부하실 것입니다. 대부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고, 초신자들을 위한 양육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늘 양육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CGNTV 직원이 좋은 콘텐츠가 정말 많이 담긴 ‘풍당’이 출시된다면서 목회에 도움이 될 거라고 추천해주더군요. 이거다 싶었습니다.”

요즘 서울우리교회 성도들은 풍당한다. 모든 성도가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를 매일 시청하고 있다. 신약은 이미 일독을 마쳤고, 구약 신명기를 읽고 있다.

“탁월한 목사님들이 성경에 대한 설명을 참 잘해주십니다. 그 덕분에 설교하기 너무 좋아졌습니다. 설교와 관련된 영상이 있으면 성도님들께 미리 시청하라고 추천합니다. 풍당에는 목회에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난해에는 학부모들과 함께 ‘복음책방, 신앙을 읽다’를 시청하면서 북클럽도 했습니다. 차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도 정말 많습니다. 앞으로도 작은 교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많이 제공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서울우리교회는 풍당합니다!”

“기독교 미디어 알려주는 친구”

충청북도 제천시 백운면 도곡마을에 있는 도화교회(문순국 목사)는 차세대가 꿈을 키우는 교회다.

“도화교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그룹홈, 산촌 유학센터도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했을 때 아이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공부방을 시작했습니다. 공부방으로 시작해서 2004년 지역아동센터를 개설했는데 아이들이 더 늘었습니다.”

도화교회 방송사역 팀장 백지훈 형제(16세)는 8살 때부터 도화교회에 꿈과 비전을 키우고 있다. 다양한 관심사가 있는데, 요즘에는 방송, 미디어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도화교회 방송은 지훈이가 다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도화교회에서도 영상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한 1년 정도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습니다. 유튜브가 정말 좋은 도구이지만 지훈이가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있구나 합니다. 인터넷에서 풍당이라는 것을 찾았다면서 이용해보자고 하더군요.”

백지훈 형제는 유튜브와 풍당이 큰 기술적 차이가 없는데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한다.

“유튜브도 좋은 플랫폼인데 알고리즘이 안 봐도 되고, 봐서는 안 되는 영상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단점이 너무 확실해서 목

사님께 풍당을 이용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풍당에서는 유익한 콘텐츠만 골라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백지훈 형제는 풍당을 만지작거리다가 풍당에 푹 빠져 버렸다.

“갯툰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갯툰을 보여줬는데 정말 좋아합니다. 성도님들도 아이들과 볼 수 있는 유익한 영상이 많으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풍당을 시청하면서 기독교 방송, 기독교 미디어, 기독교 콘텐츠가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풍당은 비전을 나누는 좋은 친구입니다.”

“열린우리교회 양육 ‘풍당’으로 합니다”

서울시 강동구 성덕고등학교에서 예배드리 는 열린우리교회(이태희 담임목사)는 올해 3월부터 풍당을 이용해서 ‘열린성경학교’를 시작한다. 무려 20주 동안 진행되는 열린우리교회의 핵심 양육이다. 많은 성도가 기대하고 있고, 목회자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풍당을 담당하는 박민하 목사는 행복한 고민에 빠져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온라인 교회가 굉장히 활성화됐었습니다. 한국 교회에도 온라인 목회를 적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넘어야 할 편견과 벽이 많았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온라인 목회의 필요성을 느낀 한국 교회에서 다양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개교회가 온라인 목회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풍당은 개교회마다 온라인 목회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목회를 하는데 정말 탁월한 도구입니다. 특히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수강률, 진도율 등을 관리하는 기능이 너무 좋습니다.”

열린비전교회는 ‘교사세미나’, ‘제자반’ 등 다양한 양육과정을 풍당으로 시도하면서 그들만의 온라인 목회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박민하 목사가 교회를 먼저 생각해주는 CGNTV에게 감사를 전했다.

“CGNTV 풍당팀은 항상 ‘교회에 뭐가 필요할까?’, ‘교회에 어떻게 도움이 될까?’를 물어봐 주시고 고민해주십니다. 목회자들이 풍당을 좋아하고 고마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와 양육 기능들을 많이 만들어주십시오. CGNTV와 풍당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진정한 주일성수의 의미와 기도

“주일성수가 어려운 직업군입니다. 교대근무를 해서 토요일과 일요일 번갈아 가면서 당직해야 할 때가 많고, 바빠서 따로 예배드릴 시간을 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온라인 영상예배를 드리고 있고, 공동체 활동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취직할 곳이 교대근무, 출장 등의 이유로 주일성수나 공동체 활동이 힘든 곳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신앙의 끈을 놓치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목사님!”

과거 이집트 카이로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보통 중동국가들은 금요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한인 교회들은 금요일이나 일요일을 주일로 지킨다. 일요일이 아닌 금요일을 선택해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잘못된 것일까? 금요일에 예배드리는 교회는 세상과 신앙을 타협한 교회일까?

또 이런 사례가 있다. 미국 시골 주의 유학생 교회에 심장병을 고치는 의사가 출석했다. 그는 항상 뺨뺨을 켜놓은 채 주일예배에 참석했

다. 이유인즉 위급한 환자의 호출이 오면 주일 예배 중에도 병원으로 가야 했기 때문이다. 예배드리다 말고 병원으로 가서 일해야 하는 이 의사는 주일성수를 한 것일까? 하지 않은 것일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일성수(主日聖守)’는 단순히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가 아니다. 주일성수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의미다. 왜 주일을 지켜야 할까? 주일을 지키는 것은 신앙고백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왔다는 신앙고백이다. 바로 이 신앙고백으로 일주일 중 시간을 구별해서 일을 멈추는 것이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의미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섬긴다는 신앙고백이다. 우리는 이 신앙고백을 가지고 함께 모여 예배드린다.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신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면서 예배드린다.

중동국가에서 예배드리는 게 쉽지 않다. 하물며 금요일에 모여서 예배드린다. 그들은 신앙의 불모지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으

로 예배드리고 있다. 그 의사라고 언제 울릴지 모르는 뺨뺨을 허리춤에 차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옳으냐고 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했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성수의 다가 아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지만 주일날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는 것은 중요하다. 주일날 교회에 가지 않으면 공동체 생활을 하기 쉽지 않다. 공동체 안에 있어야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 당장은 직장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상황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 한 가지 필요한 게 기도다. 주일날 예배에 출석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 하지만 이 직장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주일날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하는 것이 나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다른 직장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내 신앙을 위해서 이 직장에 도저히 다닐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만두는 것도 신앙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무엇이 바른 신앙인지, 바른 결정인지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 다음에 결정해야 한다.

먹고 사는 문제는 참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다. 그러기에 믿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다. 우리가 세상의 모진 유혹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더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



최대홍 목사
(J4U청년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모상담

자녀의 사춘기와 부모의 사명

아이들은 커가면서 많은 변화를 겪는다. 특히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은 신체, 정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개인적인 변화는 물론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이 시기 가장 특징적인 어려움은 사춘기 자녀와 대화가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부모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자녀를 대하려고 하는데 자녀의 반응이 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 시기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참 힘들다”고 말한다. 사춘기 자녀와 함께 지내는 게 쉽지 않다고 느낀다.

자녀의 사춘기가 부모에게 더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또 다른 이유는 부모 역시 변화의 시기에 접어들기 때문이다. 대부분 부모는 자녀의 사춘기 즈음 중년기의 변화를 경험한다. 인간은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변화로 인해서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낼 수 있다. 자녀의 사춘기와 일명 중년의 사춘기(思秋期)가 만나면서 자녀와의 대화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심리적인 정체성을 찾아가거나 확인하는 시기이고, 자녀는 자녀 나름대로 인생의 방향을 찾고, 변화되는 자신의 모습을 알아가고 수용해가는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게 된다.

자녀는 정서적으로 불안정성을 보일 수 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인생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기도 한다. 그동안 절대적인 표준이라고 생각하고 따랐던 부모의 말에 반대 의견을 표시하기도 한다. 부모는 그렇게 순종적이었던 아이가 어느 날 반항하거나 짜증을 낸다면 마음에 평정심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미운 일곱 살’이라는 말이 있지만, 사춘기를 심하게 겪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더 많은 스트레스가 된다. 사춘기를 맞이하는 자녀는 부모가 더이상 자기를 아이로 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진다. 자기의 주장을 표현해보기 시작한다. 그런 자녀의 모습이 부모에게는 낯설게 느껴지기도 한다.

자녀가 의견을 표현하기 시작한다면 부모는 기뻐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다. 그러나 아이의 변화가 너무 갑작스럽게 나타났을 때 당황한 부모들이 자녀를 수용하고 받아주기보다 훈계하는 쪽을 택한다. 그 과정에서 자녀와 부모의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 대화 없는 자녀와 부모, 갈등이 극에 달해있는 부모와 자녀, 서로 완전히 갈라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아이의 어린 시절, 사춘기 시기에서부터 부모와의 갈등이 쌓이게 되면 서로 단절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관계가 고착된다. 특히 신앙을 가진 부모와 자녀의 갈등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 모든 아이가 사춘기에 신앙적인 방향과 갈등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아이

가 신앙의 사춘기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 가장 흔한 것이 ‘신앙에 대한 반문’, ‘신앙생활에 대한 싫증’ 등이다. 하나님의 실존을 의심하는 것을 보게 된다. 사춘기 자녀들이 방황하는 시기가 되었을 때 부모는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우고자 하는 열망이 강한 부모일수록 자녀의 사춘기 방향도 벽찬데 신앙적인 반항까지 하는 자녀를 본다면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이런 시기일수록 더 많은 대화와 관심이 필요하다. 표면적으로 아이들은 부모가 다가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기도 한다. 부모의 지혜와 인내, 사랑이 필요한 시기이다. 표시가 날 듯 나지 않게 도와줘야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신앙심 깊은 부모로서 힘들겠지만, 신앙의 방향도 이해해줄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아이가 원하는 대로 허용해주는 것은 사랑으로 양육하는 부모의 태도가 아니다. 아이를 위해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그 기준이 아이를 숨 막히게 만드는 심리적인 구속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이야기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사춘기 자녀들의 다양한 불만과 생각이 부모와의 대화에서 충분히 표출될 수 있도록 허용적인 식탁의 자리,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자녀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부모는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신뢰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다.

자녀가 부모의 기대와 크게 다른 말과 행동을 하더라도 부모는 당황하지 말고 자녀의 말을 우선 귀담아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종종 어떤 부모들은 자녀가 반듯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분명하게 훈계하고 훈육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아이들은 마음을 더욱 닫게 된다. 부모는 자주 자신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지지한다는 것을 표현해 주어야 한다. 부모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신앙과 삶의 바른길을 제시하고 이끄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물론 쉽지 않다. 부모의 한계를 많이 경험할 것이다. 하지만 부모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위임된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고자 하는 인내와 용기,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으로 늘 충만해야 하겠다(엡 6:4).

나눔: 최근 자녀의 변화 중에서 자신이 가장 당황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자녀와 즐거운 대화, 편안한 대화를 할 수 있을지 부부가 함께 나누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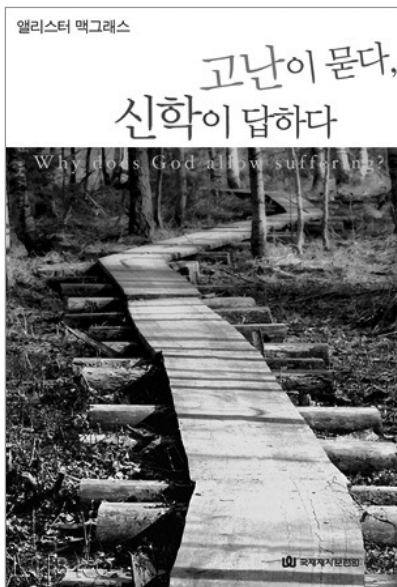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책 읽어주는 목사

신비한 고난의 역설



《고난이 묻다, 신학이 답하다》
앨리스터 맥그래스 저
| 국제제자훈련원 | 7,500원

앨리스터 맥그래스는 현대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신학자다. 그는 조직신학자이자 역사신학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탁월한 변증 방식에 담아내는 것에 매우 탁월하다. 진화론에 입각한 무신론, 유신진화론의 주장들을 한때 과학을 공부

했다가 복음주의자로 회심한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정확하고 날카롭게 비판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의 지성은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에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십자가에 집중하도록 도와준다.

그의 책 《고난이 묻다, 신학이 답하다》는 원서의 제목 ‘Why does God allow suffering?’이라는 질문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드러낸다. 많은 이들이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의 증거로 사용하는데, 맥그래스는 그 반대이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주장한다. 기독교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을 외면하지 않고 고난에 정면으로 맞선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고난당하셨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것을 ‘신비한 고난의 역설’이라고 표현하며 십자가의 역설이 우리 삶에 적용됨을 알려준다.

고난은 우리 삶의 변화를 여는 열쇠다. 인간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없앤 인류 최고이자 유일한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기반하는 것이며, 이 사랑은 반드시 희생이 수반된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삶에

집중한다. 하지만 맥그래스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에게 집중할 것을 요구한다. 십자가 사건 당시 가장 큰 고난을 받은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에게는 온 인류를 구원해야 할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을 이루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다. 이 역설은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시에 그 고난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광과 생명을 허락한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과 교감하신다. 이런 의미를 지닌 고난은 우리 삶에서 매우 실질적으로 작용한다. 고난을 통해 인간의 믿음이 연단되고,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 줄기에 접 붙고, 죄의 가지들이 정리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이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 역할을 하게 한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음을 말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을 준다. 부활과 생명이라는 영광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허락한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다. 가난과 질병, 외로움과 우울증,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비교되는 삶을 바라보며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깊게 묵상하게 한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것인가?”라고 질문한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의 정점을 홀로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한다. 철저히 버림받고 외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처럼 지금 우리의 삶이 어두운 터널의 한 가운데를 통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맥그래스의 책은 기독교인들의 고난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숨어있음을 상기시켜준다. 그 사실은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과 맞서 싸우는 힘과 용기를 허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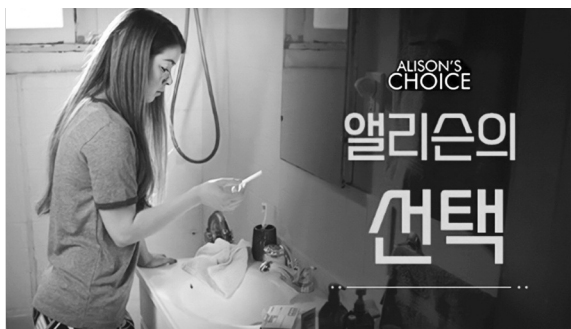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욥 23:10).



김재승 목사
(수원온누리교회)

기독교 OTT ‘풍당’ 영화 추천

사랑의 선택과 결과



《엘리슨의 선택》
브루스 마치아노 감독 / 2015년 개봉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낙태를 결심하고 클리닉을 찾아간 엘리슨 앞에 수상한 청소부 한 명이 나타났다. 그는 젊은 여자들이 수술방으로 들어갈 때마다 눈물을 흘렸고, 낙태를 고민하는 엘리슨을 계속 쫓아다녔다. 엘리슨에게 배 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까지 했다. 곧이어 엘리슨은 그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청소부의 모습을 한 예수님 외에도 많은 사람이 엘리슨에게 조언한다. 자신의 인생을 최우선에 두라는 상담사 마르타, 지금 몸 속에 있는 아이는 단지 세포덩어리일 뿐이라는 의사 윈, 아이가 돌아나 있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 아이를 지우려는 엄마 리타, 아이를 지울 수 없다면 헤어질 수밖에 없다는 남자친구 릭까지 예수님의 요청과 달리 아이를 지우려는 그들의 조언을 들으면서 엘리슨은 더 큰 혼란에 빠진다.

영화는 엘리슨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 결말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낙태를 결심했던 엘리슨의 마음이 흔들리는 과정을 보여준다. 영화는 엘리슨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을 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도 ‘사랑의 선택’이었음을 알려준다. 그 선택의 결과가 생명을 살리는 구원이었음을 깨닫게 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선택과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성도들에게 영화 ‘엘리슨의 선택’을 추천한다. 기독교 OTT ‘풍당’ 앱에서 시청할 수 있다.

다시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나치에 반대했던 신학자와 교회



디트리히 본 회퍼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해결되지 않은 과제, 1930년 세계 대공황으로 인한 경제 위기 등이 불려온 파시즘(fascism, 극단적 국수주의)은 세계사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공식적으로 5천만 명이 죽었고, 추축국과 연합국 할 것 없이 수많은 전쟁범죄(학살)를 일으켰다.

당시 독일 교회는 어떤 목소리를 냈을까? 문화에 휩쓸린 독일 교회는 “경제와 사회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히틀러를 보내주셨다”며 히틀러와 파시즘을 찬양했다. 독일 교회가 국민들을 동원하며 전쟁터로 내몰았다.

그러나 나치에 반대했던 신학자와 교회가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독일의 천재 신학자로 잘 알려진 ‘디트리히 본 회퍼’다. 1933년 권력을 장악한 히틀러가 총통이 되자 본 회퍼는 라디오에 나가 “스스로 신성화하는 지도자의 직위는 신을 모독하는 것이다”는 공개적인 비판을 한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당시 미국에서 유학하던 본 회퍼는 “저는 독일의 기독교인과 더불어 우리 조국의 어려운 시기에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편지를 남기고 독일로 돌아갔다. 미국에서 백인 중심의 교회가 흑인들을 대하는 현실을 마주한 본 회퍼는 할렘가 흑인 교회에 출석하며 자신의 신앙을 바로세웠다고 한다. 독일로 돌아간 본 회퍼는 유대인들을 옹호하며 반나치즘 운동을 펼쳐나간다. 수감 중에도 히틀러 암살계획에 동참했다가 1944년 교수형에 처한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본 회퍼의 삶(저서 <옥중서신>)을 묵상하며 크리스천의 사명과 역할을 되새겼으면 좋겠다.



여성민, 이준인 목사(온라인커뮤니티 담당)가 온라인커뮤니티 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헤브론 카페’ 오픈

스타트리협동조합 운영, 한양대 에리카 앞

스타트리협동조합(대표 이경원 선교사)이 한양대 에리카 앞에 헤브론 카페(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74)를 개점했다. 헤브론 카페는 이주민들의 비즈니스교육, 성경 교육, 친교의 장(場)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 3월 1일 헤브론 카페에서 오픈기념예배를 드렸다. 노규석 목사, 이경원 선교사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노규석牧사는 “헤브론 카페

가 누구나 와서 쉬고, 친구가 되고, 믿음을 얻어가는 오아시스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축복했다. 이경원 선교사는 “헤브론 카페가 이주민 비즈니스 선교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며 기도를 부탁했다. 스타트리협동조합은 이주민들의 삶과 꿈을 위해 일자리 창출, 행정 지원, 한국어 교육 등을 하는 사역 단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3월 15일 개강

화 오후 8시 Zoom, 한건수, 김숙경 등 강의

여러 사정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20세 이상 성도들을 위한 맞춤 온라인 공동체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Onnuri Online Community: 이하 온라인커뮤니티)’가 3월 15일 개강한다. 매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이번 학기 온라인커뮤니티는 3월 15일 개강 수련회를 시작으로 한건

수 대표(국민대 겸임교수), 김숙경 소장(결혼예비학교 강사) 등 여러 강사들의 강의를 이어진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가하고 싶은 성도는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커뮤니티는 2021년 5월 시작됐다. 개인 사정으로 교회나 공동체에 소속할 수 없었던 성도들이 대상이다. 공동체 활동에 무관심했거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성도, 공동체에 등록하지 않은 성도, 전도대상자, 구도자까지 포함하는 맞춤 온라인 공동체이다.

서혁 온라인커뮤니티 팀장(성북공동체)은 “온라인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늘 함께한다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문의: 02-3215-3214

NGO 더멋진세상 마다가스카르 우물 완공

이키안자마을에 식수 공급

NGO 더멋진세상이 지난 2월 마다가스카르 이키안자마을에 두 번째 우물을 완공했다. 이키안자마을에는 우물이 없어서 주민들이 땅을 파거나 강물로 생활용수를 의존했었다. 2020년 시작된 NGO 더멋진세상의 식수지원 사업으로 마다가스카르 이키안자마을에 두 개의 우

물이 생겼다. 그 덕분에 이키안자마을 주민 1,266명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고 있다.

암팡가베 시장은 “코로나19와 긴 건기로 주민들이 희망을 잃고 있었는데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 김영선 기자

재정국 선임간사 모집

금융기관 유경험자 대상

재정국에서 선임간사를 모집한다. 온누리교회 성도로서 신실하고 은행 업무나 회계업무에 능통한 금융기관 유경험자(7년 이상)가 대상이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신앙간증문 포함)를 이메일(shine8902@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문의: 02-3215-3219

와이무슬림 참가자 모집

와이무슬림 참가자를 모집한다. 4월 5일부터 5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4월 3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만 원.

문의: 010-5557-8924

젊은부부학교 지원자 모집

젊은부부학교 지원자를 모집한다.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4월 2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가정 당 10만 원이다. 문의: 010-2086-8210

두란노바이블칼리지 온라인 세미나

‘십자가 풍성하게 읽기’

사순절 특별강좌 ‘십자가 풍성하게 읽기’ 세미나가 3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온라인(동영상 강의)으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가상 철언’에 대한 성경학자의 전문적인 해설을 들을 수 있다. ‘임마누엘을 위한 십자가’, ‘희년을 위한 십자가

’, ‘구원을 위한 십자가’ 등을 주제로 권해생 교수(국제신학대학원 신약학)가 강의한다. 십자가 사건을 삶과 신앙에 적용하기 원하는 성도나 목회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강의는 두란노바이블칼리지 홈페이지에서 시청할 수 있다. 회비는 4만 원.

문의: 02-2078-3266

온누리전도학교 훈련생 모집

3월 20일~5월 29일 매주 목요일 온라인

온누리전도학교 훈련생을 모집한다. 3월 20일부터 5월 29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유튜브)에 강의 동영상상이 게시된다.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고 목요일과 토요일 중에서 하루를 선택해 조별모임을 한다. 온누리전도학교 개강예배는 3월 20일 주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드린다.

온누리전도학교는 복음을 누구나 쉽게 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수강신청은 3월 20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필독서, 전도지, 교재비 포함). 문의: 010-5219-8707, 010-9701-9754

2022년 하반기 결혼예배 예약

2022년 하반기(8월~12월) 온누리교회 결혼예배 예약을 한다. 3월 22일 오후 7시 양재온누리교회 드림홀(지하 2층)에서 추천한다. 결혼예배 예약은 예비 신랑, 신부 또는 양가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면 할 수 있다. 예비 신랑, 신부는 반드시 등록교인이어야 한다(타 교회 가능). 예약금 50만 원과 예비 신랑, 신부의 교인확인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문의: 02-570-7505

We are PowerWave!

차세대 패션 집회 청소년 600여 명 참석

지난 2월 23~25일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We are PowerWave’를 주제로 3년 만에 막 오른 차세대 파워웨이브 패션(Passion) 집회 열기가 대단했다.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소속 청소년 600여 명이 참석했다(23일 527명, 24일 758명, 25일 572명).

크리스천 유튜버 케이(Kei, 유튜브 채널 ‘kei is loved’ 운영), 한경진 기자(새벽나라 편집 기자), 박위 형제(유튜브 채널 ‘WERACLE’ 운영) 등이 게스트로 참가했다.

배운서 학생(서빙고 파워웨이브, 고등1학년)은 “기도로 학교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고백했고, 유지안 학생(도곡 파워웨이브, 중등1학년)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관련기사 2면>.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두란노어머니학교 119기 지원자 모집

3월 7일~4월 4일 매주 월요일 온라인(Zoom)

두란노어머니학교 119기 지원자를 모집한다. 3월 7일부터 4월 4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는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 ‘아내의 사명’ 등

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진다.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www.mother.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10만 원(사모, 선교사, 목회자는 50% 할인).

문의: 02-2182-9110

아름다운동행 참가자 모집

아름다운동행 참가자를 모집한다. 아름다운동행 지원자반은 3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3월 10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가정당 5만 원(교

재비 포함). 아름다운동행 코치반은 3월 12일부터 3월 19일까지 토요일 오후 1시 온라인으로 이어진다. 수강신청은 3월 10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가정당 3만 원. 문의: 010-9041-5538

■ 유아세례 간증



/ 유아 김예준, 부 김태주, 모 조혜진

가장 큰 축복, 임마누엘

하나님이 결혼 10주년 선물로 우리 가정에 둘째 아이를 허락하셨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으로 여기고 태명을 ‘축복이’라고 지었고, 지난해 12월 예쁜 아들 예준이를 만났다.

출산 다음 날 아침 문제가 발생했다. 예준이가 폐에 심한 기흉이 생겨 대학병원으로 옮겨야 했다. 이동용 인큐베이터에 실려 가는 것만 아기를 보면서 착잡하기 그지없었다. 모세를 갈대상자에 띄워 보낸 요게벳의 마음처럼 하나님 손에 아이의 생명을 위탁하는 수밖에 없었다. 나는 많은 분께 중보기도를 부탁드렸다. 그날 새벽 3시쯤 살짝 잠이 깼다. 마음속에서 찬양이 나왔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듯한 큰 평안이 찾아왔다.

다음날 담당 의료진의 이야기를 들었다. 아기가 인공호흡기 치료 중에 새벽 1시부터 호흡이 유지가 되지 않아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었다는 것이었다. 다행히 그 시간에 바로 필요한 검사를 해서 심장 폐동맥 문제를 찾아냈고, 급하게 특수약을 사용한 것이 효과가 있어 깊은 밤중에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는 것이었다. 아! 그 새벽 나는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 병원의 모든 의료진과 예준이 위

에 운행하시며 아이의 생명을 지켜주셨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시 4:8) 말씀이 내 마음을 울렸다.

코로나19로 면회가 전혀 허용되지 않아서 부모임에도 아이 곁에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예준이와 함께하셔서 뇌, 폐, 심장, 소화기관을 어루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는 것을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기다렸다. 마침내 3주 동안 중환자실 치료 후에 예준이가 회복된 모습으로 우리 가정으로 돌아왔다.

2주가 지나고 가족 모두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자택격리 및 치료를 하게 되었다. 중환자실에서 예준이를 붙들며 주신 하나님께서 코로나19도 능히 이기게 해주실 것을 믿고 우리 가족 넷이 함께 손을 꼭 붙잡고 기도했다. 그 시간이 진정한 축복임을 경험했다. 인생의 많은 일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았다. 마침내 코로나19도 이겨내고, 예준이가 유아세례를 받게 되었다. 예준이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겨 드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이 가장 큰 축복이다.

■ 두란노어머니학교 수료 간증



/ 이미영 성도(북누리공동체)

우리 가정에 핀 새로운 사랑의 꽃

어머니학교는 내게 새로운 사랑을 선물했다. 전에는 알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었다. 어머니학교에서 배운 새로운 사랑이 가족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바꿨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할 일들을 알게 했다.

어머니학교에서 어머니가 되기 전에 먼저 아내의 자리에 잘 서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자녀들이 태어남과 동시에 어머니라는 자리에 조금 더 집중하며 살아온 시간을 돌아보게 되었다. 아내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 것만 같아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앞으로는 남편이 편히 숨 쉴 수 있는 한없이 넓은 마음을 지닌 아내가 되고 싶다. 시린 발을 녹일 수 있는 따스한 아랫목과 같은 보금자리가 되어주고 싶다.

아이들에게도 얼마나 이기적인 엄마였는지 새삼 깨달았다.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나의 고백이 얼마나 내 중심적이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다.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했던 것을 인정하고 아이들에게 사과하는 시간이었다. 더 따스한 눈빛으로, 더 따뜻한 말들로 아이들을 품고 다독여주는 엄마가 되고 싶다.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헤아려주는 엄

마가 되고 싶다.

어머니학교에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것들을 보고 들었다. 이제야 남편의 무거운 어깨가 보인다. 남편래 흘렸을 눈물방울이 보인다. 제대로 내뱉지 못했을 신음이 들린다. 이제야 엄마의 품이 그리운 아이들이 보인다. 엄마의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어머니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발판 삼아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다.

무엇보다 어머니학교를 마치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었다. 아내와 엄마로 살며 애쓰던 것을 인정해주고 안아주는 시간을 가졌다. 나를 보듬어줬더니 가족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가정 안에 새로운 사랑이 꽃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막 꽃피운 새로운 사랑을 잘 가꿔야겠다. 지친 남편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아이들에게 더 큰 사랑을 전해줘야겠다. 가정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걸어가고자 한다. 쉬어가도 괜찮고, 천천히 가도 괜찮다. 우리 가정에 핀 새로운 사랑의 꽃이 시들지 않고 더 많은 꽃씨를 날리기를 소망한다.

■ 와이미션 수료 간증



/ 엄미라 성도(동대문중앙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상처가 많고 의지할 곳도 없어서 힘들던 어린 시절 작은언니와 나는 교회를 찾아다녔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큰언니와 오빠들은 잠깐 교회를 다니다가 사람에게 상처받고 발걸음을 끊었다. 결혼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크게 느끼면서 작은언니와 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다. 사실 작은언니는 큰언니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 연락을 끊고 살았고, 큰언니와 작은오빠도 금전 문제로 사이가 나빴다. 그래도 작은언니는 먼저 하나님을 만났기에 미워할 수 없는 안타까움으로 큰언니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도 함께 기도했다.

어느 날 큰언니에게 전화가 왔다. 큰아들 가정 문제로 힘들어하면서 기도를 부탁한다고 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믿겠다고 울면서 말했다. 우는 언니의 목소리에서 많은 것이 느껴졌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가 전해졌다. 어느 곳에 가셔도 평안을 찾지 못했던 그 마음이 짐작되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하면서도 큰언니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주님을 찾지 않을 거라고 생

각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으신다는 그 구절을 이제야 가슴 깊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곧바로 하나님께 회개기도를 드렸다. 그러면서 신원석 목사님께서 해주신 와이미션 강의가 떠올랐다.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가 복음의 씨앗이 되었고, 더 나아가 한국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 그래서 먼저보다 못한 나에게 복음이 들어왔다. 그런데 나는 그동안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적극적으로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하지 못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는 나와 우리 가족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 이제야 와이미션에서 배운 선교의 본질, 우리가 선교에 동참해야 하는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해야 한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큰언니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것처럼 세상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한다.

■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 정지원 성도(이촌공동체)

아이와 함께 공부하고, 나누고, 기쁨 맛보고

내가 공부를 시키려 해도 쉽지 않은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나누면서 아이를 양육한다는 것이 일반 공부보다 더 큰 도전이 됐다. 그래서 예진이에게 의향을 물었는데 새로운 과목이 추가되는 것인가 하는 불안한 눈빛으로 무슨 공부인지 내게 되물었다.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고, 숙제나 시험이 없다고 했더니 선뜻 하겠다고 했다. 솔직히 부담을 더 크게 느낀 것은 나왔다. 이제 10살이고 문해력이 뛰어난 아이도 아닌데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교재를 소화하고 나눔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그런 나의 부담을 필독서 <하브루타>가 덜어줬다. 미국 유대인 사회에서 고등학교를 다닌 나에게 유대인들에 대한 인식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편견을 가진 채로 책을 읽었는데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경외심에서 비롯된 생활 습관과 전통을 알게 되었다. 나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아이와 마음을 열고 토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예진이와 함께한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에

서 나는 충분히 대화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 집중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꼭 교재로 함께 공부하고, 암송 구절을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했다. 한 주씩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가 그 시간을 기대하는 눈빛으로 필기구와 책을 가지고 식탁으로 왔다.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크게 감동했다. 한 주가 지나면 다 잊어버렸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특히 구원의 확신에서 나오는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예”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린이의 순수한 믿음을 강조하셨던 장면이 생각났다.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는 예진이가 시작 기도와 마침 기도를 하려고 하는 모습도 기록했다. 지금 중학생인 큰아이도 나와 이 과정을 함께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을 정도다.

그 어떤 학문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와 함께 공부하고, 나누고,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과 사역자님들께 감사하다.

장로칼럼

“문화의 그릇에 복음 담는 통로”



박공 장로
(신용산공동체)

지난 2월 20일자 온누리신문에서 이재훈 담임목사님이 목회사관학교에서 선포하신 ‘복음과 문화’에 대한 메시지를 읽었다. 격동하고 있는 노사문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에게 단비와 같은 말씀이었다. 이재훈 담임목사님이 선포하신 메시지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복음은 세상 문화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고, 함께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다. 복음의 역사에는 언제나 그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있다. 문화의 그릇을 담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목회자와 회중도 문화 속에 있다. 그러므로 문화를 변별하면서 순수하게 복음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나는 이 말씀을 직장선교 활동(택시회사 신우회 노사업무)의 지표로 삼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입사 초기에는 전도 중심으로 직장선교 활동을 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곤 했다. 신우회를 선교회로 바꾸는 등의 변화를 가져 보기도 했다. 그러나 돌아보면 무엇인가 아쉬움이 많았다.

모두가 잘 알겠지만, 과거부터 기업가와 노동자의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양측의 이익과 권리를 얻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문화가 깊게 자리 잡고 있다. 내가 몸담은 서울 택시 업계에서는 직장 신우회가 생겨나면서 노사협력과 상생 문화가 자리 잡았다. 그런데 최근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노사문화가 만들어지고 있다.

얼마 전 서울시 택시회사 90%에서 최저임금 소송사태가 발생했다. 이제는 노사가 대놓

고 법정 싸움을 하는 관계가 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택시회사들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다(매월 약 1~3천만 원 적자 발생). 말 그대로 속수무책이다. 화합과 협력이라는 상생 문화가 어디로 가버렸을까? 택시회사들이 버티지 못하고 회사를 매각하는 추세이다. 신우회도 택시회사 2개사를 매각했다. 전국의 택시회사가 비슷한 사정이다.

신우회가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쉽게 입술이 떨어지지 않는다. 지금 나와 신우회에는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신앙이 필요한 것 같다.

팀 켈러 목사는 <센터처치>에서 “교회가 문화를 생각하지 않거나 문화의 어떤 부분이 선하고, 악하고 또는 중립적인지를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교회 구성원들은 문화에 동화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사실 교회 밖 신앙생활은 대부분 성도에게 맡겨져 있는 상태다. 그런데 문화는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 모두에게 세상 문화에 대한 적절한 지침을 준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팀 켈러의 말대로 될 것이 자명하다.

나는 일대일제자양육과 전도를 배우면서 문화명령과 세상을 대하는 자세를 배웠다. 나의 일(노사업무)을 복음의 그릇으로 삼아야겠다고 다짐하지만,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은 더 깊은 기도와 묵상이 필요할 것 같다.

나와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특별히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올 것이다. 나에게는 ‘문화의 그릇에 복음을 담는 통로’가 되라는 음성이 들린다. 문화의 그릇에 복음을 담고 이끌어 나가야 한다.

권사칼럼

자리 지킴



서정원 권사
(관악금천공동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다. 권사회를 위해 기도하던 중에 권사님들과 함께 이런 신앙고백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이 고백은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평범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해준 삶의 영역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총돌하고 갈등하며 하는 고백이기도 하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내게 주신 자리를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우리의 신앙 인생이 녹아든 말씀이다.

참된 경건을 주제로 한 야고보서 말씀의 주일설교가 권사회를 바라보는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했다. 이 재난의 시기에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공동체 움직임에 순전히 따라가는 권사님들의 모습을 본다.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부터 권사회는 단체채팅방이라는 영역에 이름을 두고 묶여 있다. 실재가 느껴지지 않는 테두리 안에 갇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흔탁한 시절에 오히려 같은 믿음의 식구들끼리 흠어지지 않게 묶어 주셨다는 감사의 생각이 먼저 든다. 이 안에서 ‘온누리교회 관악금천공동체 권사회’라는 우리의 소속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곳이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되었다.

마침 요즘 읽고 있는 민수기에서 지파별, 가족별로 이름을 부르고 소속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말씀이 귀에 들어온다. 인구수를 헤아릴 때도 이스라엘 전체를 개인으로 나누지 않는다. 지파별, 가족별로 합을 모아 이스라엘

전체를 헤아리고 파악한다. 권사회로 묶인 우리도 하나님이 묶어 주신 공동체라는 생각이 든다. 요즘 묵상하는 민수기 말씀을 볼 때면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알려 주시는 것 같다.

그런데 아주 가끔 권사회 단체채팅방을 나가시는 분이 계신다. 이유를 들으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다. 권사 개인은 공동체 소속 권사로 그 이름을 권사회 단체채팅방 이름에 올린다. 누가복음 3장 예수님의 족보에는 수많은 이름이 나온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족보의 한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름들이다. 아는 이름도 있지만 대부분 모르는 이름들이다. 족보 말씀을 묵상하면서 권사회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이름이 떠올랐다.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유명하지 않아도, 빛나지 않아도 정해주신 위치에서 평범하게 자기 삶을 살아낸 사람들일 것이다. 권사회에 이름을 올리고 무뎠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주어진 삶을 살며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된 경건의 실체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이제 3월이다. 시작의 계절이다. 3월을 뜻하는 ‘March’는 진행한다는 뜻이다. 시작과 진행에는 출발점이 존재한다. 어떤 상황이건 지금까지 지켜온 자기 자리가 그 출발점이 되면 어떨까. 그래야 감사할 것이 생각나고 무엇이 부족하고 어떤 것을 떨어내고 어떻게 회복하며 도전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주님께 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며 권사님들과 같은 단체채팅방 안에서 관악금천공동체와 온누리교회 공동체에 잘 붙뚫아 가는 자리 지킴의 길을 오늘도 걷는다.

신앙에세이



노치형 목사
(중종로공동체)

1983년 중학생 시절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를 많이 불렀다. 전체 가사를 기억하지는 못하고 후렴 가사만 기억난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 주세
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부모에게 자신의 인생에 너무 심하게 간섭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었다. 어릴 적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며 동의했다. 하지만 교회와 집에서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면서 그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했다. 어린 내 속에 반발(反撥)이 생겼고, 더 크게 노래를 불렀다. 마치 누군

가 들으라는 듯이 말이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문장이 전해주는 무게가 점점 커졌다. 인생의 시작, 과정, 마지막의 책임을 모두 내가 지겠다는 고백이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청년이 되고, 목회자가 되고, 결혼하면서 그 무게감이 더욱 커졌다. 내 인생만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야 할 존재들의 인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들었다. 그 생각만으로도 탈진(脫盡)할 것 같았던 적도 있었다.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다. 아무것도 없는 언덕에서 있었다. 갑자기 저 멀리서 폭풍이 생겨나 내 쪽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당황해서 주변에 붙잡고 버틸 게 있는지 살펴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언덕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비싸고 좋은 허리띠를 착용하고 있었다. 나는 허리띠를 꼭 붙잡고 있겠다고 결심했다. 폭풍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강력하게 다가오고 있었고, 나는 허리띠를 붙잡고서 벌벌 떨면

나는 어떤 종인가?

서 꿈이 끝났다. 지금까지도 그 꿈을 종종 기억한다.

‘나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질문의 해답을 찾고 찾다가 나를 도울 수 있는 존재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존재라는 고백을 선포한다.

진정 내 인생은 나의 것인가? 물론 내가 살아 내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내 인생은 내 것이다. 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결코 나라고 말할 수 없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을 섬기는 종이다. 그래서 오늘날 나는 종으로서 내 영과 마음과 몸을 관리한다. 주인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게 사용하기 위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매 순간 움직인다.

사도 바울의 추종자였던 의사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의 태도’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다.

첫째, 종은 자신에게 임무를 주고 떠났지만,

다시 돌아오실 주인님을 늘 깨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기다려야 한다(눅 12:35~40). 둘째, 종은 자신에게 임무를 준 주인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고 결혼예식을 준비하듯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눅 12:36~37, 40a). 셋째, 종은 주인님이 앞에 계시든지 멀리 계시든지 시킨 대로 바르게 임무 수행을 해야 한다(눅 12:40b, 42b). 넷째, 종은 주인님이 돌아왔을 때 칭찬과 복을 받기 위해 주인정신(主人精神)으로 섬기는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눅 12:37a, 38, 39~40, 43~44). 다섯째, 종은 주인의 뜻을 몰랐거나 혹은 알면서도 제멋대로 행동했을 때 주인에게 심하게 매를 맞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어떻게 행동할지를 선택해야 한다(눅 12:45~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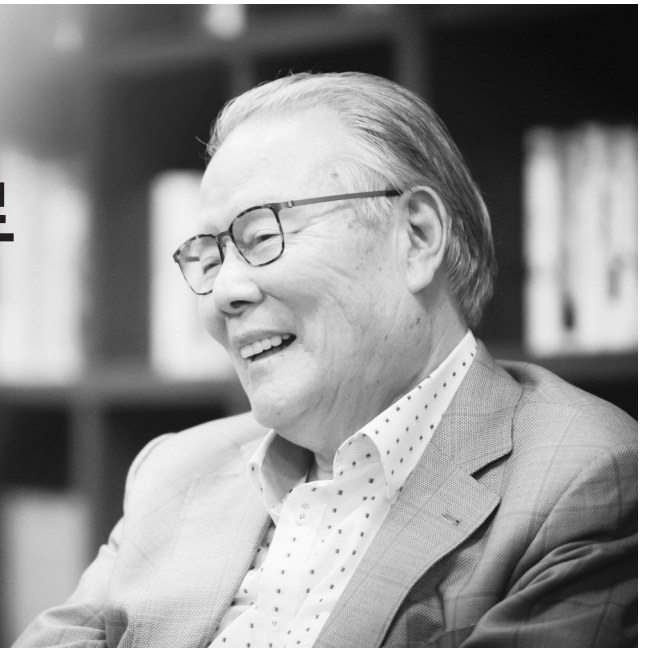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으로 인정받고 싶다. 많은 장애물이 예상된다. 그러나 간절히 소망하며 순종의 훈련을 해나갈 것이다.

故 이어령 교수 추모사

지성에서 영성을 넘어 천국의 길로

초대문화부 장관이자 한국 대표 석학, '시대의 지성'으로 불린 이어령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명예석좌교수)가 지난 2월 26일 소천했다(향년 89세). 서승옥 권사(고양은평공동체)가 대학 시절 은사였던故 이어령 교수를 추억하고 기리는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살아있는 사람은 울다가도 배가 고프면 먹는다. 눈물을 흘리다가도 웃는다. 영정사진 속 선생님은 어제 아침에도 오늘 아침에도 똑같이 웃고 계셨다.

2004년 차세대 행사가 있어 이어령 선생님이 교회에 오셨다. 그날 선생님은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할 자세가 돼 있으나 아직 길 잃은 양 처럼 헤매고 있습니다”라면서 스스로 ‘미신자’라고 하셨다. 그날 선생님이 창세기 1장을 이야기하신 것 같았는데 왠지 땀송땀송했다. 무엇인가 좀 허전했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박사과정까지 매 학기 선생님 강의를 들었다. 그 이후에도 선생님의 많은 말씀을 늘 감탄하며 들었다. 그런데 그날 강의는 뭔가 빠진 느낌이 었다. 강연을 마치고 내려오신 선생님도 조금 허전하셨는지 내게 강연이 어땠는지 궁금해 예뻐 물어보셨다. 나는 “지적으로 분석은 좋지만...”이라며 얼버무렸다. 하용조 목사님이 선생님의 강의를 끝나고 단에 올라오셔서 말씀하셨다.

“우리 이어령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속으로 말하기 어려운 헛헛

함이 느껴졌다. 성령이 내재되지 않은 분석이 무엇인지 느낌으로 알았던 것 같다. 2007년 동경 러브소나타에서 선생님이 미신자에서 신자가 되었다. 그곳에서 하 목사님께 세례를 받으시며 “예수님의 옷 끝자락이라도 잡고 가겠다”고 고백하셨다. 이후 선생님은 책 <지성에서 영성으로>를 세상에 발표하셨다.

2011년 여름 어느 목요일, 이어령 선생님과 따님인 이민아 목사와 교회에서 우연히 만났다. 하용조 목사님과 식사하러 가는 중이었다. 선생님은 하용조 목사님께 나를 가리키며 새삼스레 “내 제자”라며 인사시키셨다. 하용조 목사님은 차에 타시고도 창문을 내리고 계속 손을 흔들었다. 마치 “너희 선생님 잘 돌봐드려라”하는 것처럼 계속 흔들었다. 그다음 주일 나는 하용조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를 듣고 중국으로 일대일제자양육을 하러 아웃리치를 떠났다. 그 중국 아웃리치에서 하용조 목사님의 소천 소식을 들었다.

이어령 선생님은 하용조 목사님과의 마지막 식사를 회상하며 “목사님이 춥다고 하시는데 담요라도 돌려드리지 못했던 것이 너무 마음

아프다”고 여러 번 말씀하시곤 하셨다. 나는 차창 너머로 손을 흔들시던 하 목사님이 내게 하신 무언의 약속을 생각하며 선생님이 신앙 관련 강연이나 글을 쓰실 때 도움을 드리기로 작했다. 이즈음 <뽕만으로는 살 수 없다>를 쓰셨다.

이어령 선생님은 욕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셨다. 아마 세례받고 얼마 지나지 않은 즈음에 아끼는 외손자를 잃어서 더 그러신 것 같았다.

선생님은 성경 관련한 질문을 많이 하셨다. 하루는 “양들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하더라. 양들도 다 하나하나 이름이 있다는 게 어디 나오는지 찾아봐 달라”고 하셨다. 내가 속스러워하며(공자 앞에서 문자 읊는 것 같아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나와요”라고 했더니 이어령 선생님은 내가 성경을 잘 안다며 추켜세우셨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한 “거듭남, 어찌해야 거듭날 수 있을까요?”하는 질문을 잘 인용하기도 했다. 물 떠온 하인만 아는 변화, 성령이 함께하심이 있는 말씀들을 어느 강연과 누구

와의 대화에서 늘 하셨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것 뿐”이라고 하시면서 말이다.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했던 이어령 선생님이 가셨다. 하용조 목사님을 만나셨는지. 참 즐겁고 편안해하실 것 같다. 죽음을 예감하며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출간하신 <메멘토 모리>의 부제이기도 한 ‘너 두고 나 절대로 안 죽어’ 하셨던 열한 살에 헤어진 그리운 어머니도, 사랑하는 딸도 만나셨을 것이다. 하늘 그곳에서 영정사진 속 웃는 얼굴처럼 따뜻하게 만나셨을 것이다. 하나님께도 성경 말씀에 대해 질문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하며 나도 웃는다. 일점일획도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 모든 게 완벽한 교향곡 같았다. 우리의 그리운 분이 되신 이어령 선생님을 기린다.



서승옥 권사
(고양은평공동체)

교회의 사회적 책임



김형중 장로
(사회선교부
아트비전 담당)

온누리 아트비전(사회선교부)은 예술 문화 사역으로 복음 전하기 위해 세워진 공동체다. 예술 활동과 작품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온누리 아트비전의 설립 동기는 한국 교회 여러 담임목사님의 조찬 모임에서 마련됐다. 그 모임에서 ‘대한민국 기독교 아트피스트(KCAF)’를 만들어 보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이재훈 담임목사님의 요청과 전적인 지원으로 2012년 4월 아트비전 첫 모임을 했다. 그해 제1회 대한민국 아트피스트 전시회를 밀알미술관에서 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청년들이 주를 이뤘다가 점차 작품활동과 신앙이 신실한 중견 예술인들이 참여하면서 현재 작가 34명이 온누리 아트비전에서 활동하고 있다.

온누리 아트비전의 목표는 세 가지다. ‘주님

이 원하시는 예술가가 되자’(말씀에 순종하는 삶),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술가가 되자’(제자의 삶),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술가가 되자’(성령 충만한 삶)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술인들도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창 1:28)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이뤄야 함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달란트로 이 시대 문화를 개발하고 변화시켜야 하는 책임과 사명이 있음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술(美術)이라는 시각적 장르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고 전달한다면 효과적인 선교 도구가 될 것이라 여겼다.

온누리 아트비전 사역은 크게 전시사역, 협력지원사역, 나눔과 후원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시사역은 기독교 미술인들의 연합체인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스트(KCAF)’ 전시회를 열고 있고, 여러 교회와 기관(사랑의교회, 지구촌교회, 동안교회, 서울영락교회, 백석대 미술인선교회, 샘미술선교회, 임마누엘미술선교회, 강원도미술인선교회) 외부 갤러리 전시,

예술 활동과 작품으로 복음 전하는 ‘아트비전’

온누리 아트비전 정기 회원전(연 2회), 교회 내·외부, 선교관, 전시실, 식당 복도 및 신동아쇼 핑센터 등지에서 전시하고 있다.

협력지원사역은 지역 섬김 프로젝트와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매년 이어가고 있다. CGNTV와 연계해서 지역 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크릴화 미술 지도와 생활예술(에코백 만들기 등), 노인 미술심리수업 등을 하고 있다. 철길 벽화제작과 미관개선 작업 및 보수 등의 섬김, 청소년 대상 미술 지도도 하고 있다. 기독교 문화예술 재능기부 협력사역으로 극단 ‘좋은나무 좋은열매’ 공연 미술팀 지원 등 크고 작은 섬김을 하고 있다. 용산구청장으로 부터 이웃사랑 모범실천 표창을 받기도 했다.

나눔과 후원사역은 전시판매 수익을 엔젤트리와 CGNTV 선교후원금으로 지원한다. 해외 선교를 위한 작품기증, 국내 여러 기관(남부교도소, 이대목동병원) 등에 작품기증을 이어가고 있다. 온누리 아트비전 사역을 통해 상쳐받은 영혼들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한다.

온누리 아트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재능으로 아름다운 창조 세계와 은혜를 시작적 언어로 표현한다.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따라 이 시대 문화를 개발하고 변화시키고 있다. 하나님이 아트비전에 부여하신 열정과 소망을 품고, 선교적 도구로 쓰임 받는 공동체가 되고 싶다. 올해 아트비전은 더욱 알찬 사역으로 내실을 다지고, 소명을 고취시키고, 밖으로는 아트비전 작품활동을 활성화하고 싶다. 아트비전 작가들의 작품에는 신앙고백이 함축된 경우가 많다. 한 번 그림을 그려놓으면 그 작품은 수십 년 혹은 영원히 간다. 작품에 실린 메시지는 작품이 살아있는 한 계속 전해진다. 작가가 작품으로 전하려는 신앙적 메시지가 계속 전해질 것이다. 아트비전 소속 작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술인’의 자긍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일깨우는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작품활동을 할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술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트비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문의: 02-3215-3434

2/24(목) 한강 이원진 성도 부친상 고 이민승
2/25(금) 천양 박건영 성도 부친상 고 박창선
2/25(금) 송파A 김기영 성도 부친상 고 김진섭
2/25(금) 송파B 김희경 권사 모친상 고 김문선
2/25(금) 양천 김윤희 성도 모친상 고 최복규
2/26(토) 영등포구로 차호성 집사 빙모상 고 서남일
2/27(주말) 가정사역 박수정 성도 부친상 고 박달환
2/27(주말) 가정사역 이재규 집사 부친상 고 안병주
2/28(월) 서대문 강찬석 장로 빙모상 고 조병욱
2/28(월) Bridge33+ 주윤경 성도 부친상 고 조성억
2/28(월) 문당B 유승표 안수찬 부친상 고 오병협
2/28(월) OCC 이보선 성도 부친상 고 이철형
3/1(화) 관악구천 고 신태웅 성도
3/1(화) 동자 오명희 권사 모친상 고 정영자
3/2(수) 관악구천 박홍순 집사 모친상 고 조순남
3/2(수) OCC 이영우 집사 부친상 고 고인선
3/2(수) 송파 박정희 성도 모친상 고 최옥란
3/2(수) 김포B 김광철 성도 부친상 고 김철영

송희경	엄지영	여훈필	염하
유기열	이정민	이정우	이국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소
홍헌철	황애란	황진주	

온더로드

in America



한 손에 복음을, 한 손에는 악기를 들고
미국 전로 여행을 떠난
한국, 미국, 일본의 네 청년 이야기



G**ce 한 분 한 분 영혼을 위해 예수님 전하시는 모습과 그분들의 모습 보며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다* 죄인과 함께하고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의 여정을 걸으신 온더로드 팀의 진심이 느껴져요.

Br**zy 와 미국에서 전도라니 영어 공부해야 할 이유가 또 는 거 같아요! 많은 도전이 됩니다.
가진 자는 나누고, 없는 자도 은혜를 누리는 세상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KNOCK노크' 검색

주일 오후 3시 50분 방송

출연: 조셉 붓소(보컬), 김지영(보컬), 김지후(기타&건반), 카와무라 요시키(퍼커션, 카혼)